

# 『열하일기』 「일신수필」 서문과 동·서양 사상의 소통

김명호\*

1. 서론
2. 텍스트에 대한 서지적 검토
3. ‘천하장관(天下壯觀)’의 인식과 서학(西學)
4. 서학의 유불(儒佛) 비판에 대한 반론
5. 서문의 개작과 보충
6. 결론

## <국문초록>

본고는 ‘동·서양 사상의 소통’이라는 관점에서 『열하일기』의 「일신수필」 서문을 집중 분석한 글이다. 조선후기의 실학자로서 연암 박지원이 유학의 혁신을 위해 서학을 주체적으로 수용하고자 노력한 사실을 이 서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런데 「일신수필」 서문은 미완성일 뿐 아니라 내용이 난해하며, 이본에 따라 상당한 차이까지 있다. 따라서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텍스트에 대해 서지적 검토를 하여, 『열하일기』의 일부 이본들에서 서학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개작이 이루어지고 미완성 부분이 보충되기도 했음을 밝혔다. 이어서 「일신수필」의 서문을 단락별로 정밀하게 독해하는 데 힘쓰면서, 연암이 「일신수필」에 서문을 쓰고자 한 이유를 규명하고자 했다.

이 서문에서 연암은 공자와 석가와 서양인을 함께 거론하면서, 유가와 불교와 서학이 일상적 경험의 한계를 초월한 ‘천하의 장관’에 대해 개방적 인식을 추구하고 있는 점에서는 서로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연암은 「일신

\*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수필』 서문에 바로 이어지는 기사에서 청나라의 진정한 장관은 ‘기와 조각’이나 ‘똥거름’에 있다는 기발한 논의를 펴면서, 청나라의 발전상을 제대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편협한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역설했다. 연암은 이와 같은 주장이 당시 조선의 고루한 선비들에게 쉽게 받아들여질 수 없으리라 우려했기 때문에, 사고의 근본적 전환을 촉구하는 철학적인 논의로서 『일신수필』의 서문을 집필하고 그 기사에 앞서 배치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일신수필』 서문의 마지막 단락에서 연암은 불교와 유가에 대한 서양인 천주교 신부들의 비판을 소개한 뒤, 그들이 한문 서학서의 저술에 힘쓰는데 대해 완곡한 비판을 덧붙였다. 그런데 『열하일기』의 일부 이본들에서는 이 단락을 개작하여 서학에 대한 비판을 강화했다. 서문의 미완성 부분을 보충한 이본 역시 그 점에서는 마찬가지이다. 이처럼 『일신수필』 서문이 미완성 상태일 뿐 아니라 서학을 배격하는 방향으로 개작된 사실은 동·서양 사상의 소통을 통해 사상적 혁신을 추구한 연암의 노력이 점차 퇴색되어갔음을 의미한다.

핵심어: 박지원, 『열하일기』, 『일신수필』 서문, 서학, 마테오 리치

## 1. 서론

필자는 조선후기 실학이 서학을 주체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유학을 혁신하고자 한 학술운동이었다는 견지에서 연암 박지원의 실학사상에 미친 서학의 영향을 고찰한 바 있다. 특히 마테오 리치의 『교우론』과 『천주실의』 및 『기하원본』이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연암의 작품들을 분석하여, 동·서양 사상의 소통을 통해 사상적 혁신을 추구했던 연암의 새로운 면모를 부각하고자 했다.<sup>1)</sup> 본고는 그 연장선상에서 『열하일기』의 『일신수필(日新隨

1) 김명호, 『연암의 실학사상에 미친 서학의 영향』, 임형택·김명호·염정섭·리혜탕·김용태, 『연암 박지원 연구』, 실시학사 실학연구총서 4, 사람의무늬, 2012, 79~146면.

筆』 서문을 집중 분석해 보고자 한다. 연암이 사상적 혁신을 위해 동·서양 사상의 소통을 남달리 적극적으로 추구한 사실은 『일신수필』 서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 서문은 대단히 문제적인 성격의 중요한 글인데도 지금까지 제대로 주목을 받지 못했다.<sup>2)</sup>

『열하일기』 중 『일신수필』은 1780년 음력 7월 15일부터 7월 23일까지 중국 요녕성의 소흑산(小黑山)에서 산해관(山海關)에 이르는 9일 간의 여정을 기록한 부분이다. 제목 중의 ‘일신(駟汛)’은 ‘역신(驛汛)’과 같은말로, 청나라의 녹영병(綠營兵)이 방수하던 역참을 가리킨다. 명청(明清) 교체기의 격전지였던 이 지역에는 많은 역참들이 있었으므로 그곳들을 통과하면서 견문한 내용을 기록했다는 뜻이다.<sup>3)</sup>

『일신수필』에서 연암은 청나라의 진정한 장관(壯觀)은 ‘기와 조각’이나 ‘똥거름’에 있다는 ‘중국 제일 장관론(中國第一壯觀論)’을 피력했다. 즉 이처럼 보잘것 없는 물건일지라도 버리지 않고 알뜰하게 활용하는 ‘이용후생(利用厚生)’의 정신이야말로 청나라 번영의 비결이라고 역설했다.<sup>4)</sup> 또한 ‘차제(車制)’에서 중국의 각종 편리한 수레 제도를 상세히 논하는가 하면,

- 
- 2) 선행 연구로 노윤영, 『『열하일기』 중 『일신수필』의 서술 양상과 전략』, 한양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10, 19~28면; 박기석, 『『일신수필』에 나타난 연암의 관심사: 북학을 중심으로』, 『인문논총』 24, 서울여대 인문과학연구소, 2012, 9~16면에서 『일신수필』 서문에 대해 논했다. 노윤영은 『일신수필』 서문이 『일신수필』 전체의 복선 역할을 한다고 보았고, 박기석은 『일신수필』 서문이 ‘학문하는 올바른 자세’라는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보았다.
- 3) 기존의 『열하일기』 국역서들에는 『일신수필』의 의미가 제대로 설명되어 있지 않다. 김혈조 역, 『열하일기』에서는 “말을 타고 가듯 빠르게 쓴 수필”(돌베개, 2009, 1권, 245면)이라고 풀이했다. 그러나 ‘駟’는 驛傳을 뜻하고, ‘汛’은 明清 때 군대가 방수하던 汛地를 뜻한다. 이 경우 ‘汛’은 ‘訓’의 假借로, 여행자를 검문한다는 의미이다(今村與志雄 譯, 『熱河日記 1』, 東京: 平凡社, 1978, 171~172면 주 4 참조). 예컨대 『皇朝通典』 권72, 兵 5, 綠營兵制 下, 『陝西·甘肅』조를 보면, ‘郭城驛汛’에 把總 1인, 兵 50명이 주둔한다고 했다. 한편 燕行 사절은 압록강을 건넌 뒤 모두 30여 개소의 역참을 통과하는데, 그 중 소흑산에서 산해관 사이에 소흑산, 新廣寧, 十三山, 小凌河, 高橋堡, 寧遠衛, 東關驛, 兩水河, 산해관 등 10개소의 역참이 집중되어 있다(崔德中, 『燕行錄』, 『路程記』; 李宜顯, 『庚子燕行雜識』 下 참조). 『열하일기』 『避暑錄』 중 辛慶衍이 소년 시절에 명나라 勅使를 상대로 장승을 소재로 한시를 지어 칭찬받은 고사를 소개한 대목에 붙인 주에서, 연암은 우리나라의 장승과 유사한 것으로 중국에는 長亭이 있다고 하면서, “이제 열하로 향하는 古北口 이북 지역에 와 보니 장정에 ‘汛’ 자를 많이 썼는데 무엇을 가리켜 말한 것인지 모르겠다(今來熱河口外, 長亭多書汛字, 未知何稱也)”고 했다. 여기서 말한 長亭의 ‘汛’자 역시 검문소를 뜻한다.
- 4) 김명호, 『열하일기 연구』, 창작과비평사, 1990, 147~148면.

극장[戲臺]·시장·점포·다리[橋梁] 등을 인상 깊게 소개했다. 고루한 존명배척(尊明排淸) 사상에서 벗어나 청나라의 발전상을 직시해야 한다는 연암의 실학사상이 선명하게 드러난 부분이 바로 『일신수필』인 것이다.

그런데 정작 『일신수필』의 서문은 미완성일 뿐만 아니라 난해하기까지 하다. 『열하일기』를 구성하는 25개의 편(編) 중에서 『도강록』, 『일신수필』, 『막북행정록』, 『경개록』, 『황고문답』, 『행재잡록』, 『망양록』, 『곡정필담』, 『환희기』, 『피서록』, 『양엽기』, 『동란섭필』, 『금료소초』 등 모두 13개 편에 서문이 있는데, 그 중 유독 『일신수필』의 서문만 미완성 상태이다. 더욱이 『열하일기』의 이본(異本)에 따라 서문의 일부가 상당히 다르게 되어 있다. 이는 텍스트의 형성과 전사(傳寫) 과정에서 개작이 이루어진 증거이다. 따라서 어떤 이본을 기본 텍스트로 삼느냐에 따라 서문의 해석이 크게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반드시 서지적(書誌的)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신수필』 서문은 한자로 800여 자밖에 안 되는 짧은 글이지만, 정밀하게 독해하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렵다. 얼핏 보면 서문을 구성하는 단락들이 논리 정연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아, 횡설수설하면서 꺾편을 펴고 있는 듯하다. 게다가 동·서양 사상을 넘나들며 철학적인 논의를 벌이다가 글이 미완성인 채로 끝났기에 더욱 난해하게 느껴진다. 하지만 바로 거기에 연암의 사상적 모색과 고심이 드러나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텍스트를 있는 그대로 정밀하게 독해하면서 연암이 구태여 『일신수필』에 서문을 쓰고자 한 이유를 규명해보고자 한다.

## 2. 텍스트에 대한 서지적 검토

현재까지 필자가 조사·검토한 바에 의하면 국내외에 있는 『열하일기』 이본은 40여 종에 달하는데 이들은 다음의 네 가지 계열로 나눌 수 있다.

- (가) 초고본 계열: 가장 이른 시기에 필사되었으며, 아직 『열하일기』의 독립적인 체제가 갖추어지지 못한 이본들.<sup>5)</sup>
- (나) 『열하일기』 계열: 『열하일기』의 체제가 갖추어지고 독자적인 권차(卷次)도 부여되었으나, 아직 『연암집』에는 통합되지 않은 이본들.<sup>6)</sup>
- (다) 『연암집』 외집(外集) 계열: 『열하일기』를 『연암집』의 ‘외집’으로 통합하고자 한 이본들.<sup>7)</sup>
- (라) 『연암집』 별집(別集) 계열: 『열하일기』가 『연암집』의 ‘별집’으로 통합되면서, 『연암집』의 권차가 부여된 이본들.<sup>8)</sup>

이 중 (가)에 속하는 이본으로 『일신수필』을 수록하고 있는 것은 『행계잡록(杏溪雜錄)』이다. 『행계잡록』 제2책에 필사되어 있는 『일신수필』은 현재까지 알려진 가장 초기의 텍스트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아직 서문이 없다. (나)에 속하는 이본들부터 서문이 갖추어지기 시작해서,<sup>9)</sup> 그 이후 (다)와 (라)에 속하는 이본들에도 모두 서문이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이 서문을 갖춘 이본들도 세부적으로는 적지 않은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우선, 서문의 제목이 『서(序)』라고만 표기된 경우가 있는가 하면,<sup>10)</sup> 『일신수필서(駟汎隨筆序)』라고 명시된 경우도 있고,<sup>11)</sup> 아무런 제목

- 5) 『열하일기』의 卷次조차 부여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단국대 淵民文庫 소장 『杏溪雜錄』, 『杏溪集』, 『雜錄』, 『열하일기』(元·亨·利·貞), 『燕行陰晴』, 『黃圖紀略』, 『熱河避暑錄』, 『楊梅詩話』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들은 모두 단국대 동양학연구원, 『연민문고 소장 연암 박지원 작품 필사본 총서』(문예원, 2012)로 영인 간행되었다.
- 6) 단국대 연민문고 多白雲樓本, 綏堂本, 一齋本, 朱雪樓本, 서울대 古圖書本, 서울대 규장각본, 성균관대 尊經閣本, 충남대본, 일본 동양문고 『燕彙』本 등이 여기에 속한다.
- 7) 그러나 실제로는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아 아직 『연암집』의 권차가 부여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립중앙도서관본(乾坤), 星湖紀念館本, 연세대 『燕彙』本, 전남대본, 조선광문회본,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본, 臺灣本(中華叢書委員會刊本), 일본 九州大本, 東京都立日比谷圖書館本 등이 여기에 속한다.
- 8) 定本에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국립중앙도서관 勝溪文庫本, 국회도서관본, 단국대 연민문고 溪西本, 송실대 기독교박물관 自然經室本, 실학박물관 소장본, 연세대본, 영남대본, 일본 東洋文庫本, 大阪中之島圖書館本 등 필사본과 신활자본(木槧詰本)이 여기에 속한다.
- 9) (나)에 속하는 동양문고 『연휘』본은 아직 서문이 없다. 여기에는 『열하일기』가 최초의 제목인 『燕行陰晴』으로 표기되어 있다.
- 10) (나)에 속하는 서울대 규장각본, 일제본, 충남대본 등 몇몇 이본들.
- 11) (나) 다백운루본, 서울대 고도서본, 성균관대 존경각본, 주של루본, (다) 연세대 『연휘』본, 전남대본, 조선광문회본,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본, 臺灣本, 東京都立日比谷圖書館本 등 다

표시가 없는 경우도 있다.<sup>12)</sup>

더욱 중요한 이본 간의 차이는 서문의 마지막 대목이 다음의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 점이다.

- ㉠ 本爲此身現在而屬之過境, 境過而不已, 則昔之所憑以爲學問者, 亦無所取徵故耳. 今吾此行
- ㉡ 蓋以耳聞目見而屬之過境, 境過而不已, 則昔之所憑以爲學問者, 亦無所取徵. 故強爲著書, 欲人之必信. 見吾儒闢異之論, 則綴拾緒餘, 強效斥佛. 悅佛氏堂獄之說, 則哺啜糟粕, (缺幾字) 故耳. 今吾此行<sup>13)</sup>

앞서 말한 (나)와 (다)에 속하는 이본들은 위의 ㉠ 유형을 취하고 있고, (라) 『연암집』 별집 계열에 속하는 이본들은 모두 ㉡ 유형을 취하고 있다. 이로 미루어 『연암집』 편찬을 전후하여 ㉠에서 ㉡로 의미심장한 개작이 이루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로 개작된 뒤에도 개작된 부분의 몇 자를 삭제하는 조치가 가해졌음을 알 수 있다. 위의 인용문 ㉡ 중 ‘缺幾字(몇 자가 빠짐)’는 이를 표시한 것이다.

또한 ㉠과 ㉡을 막론하고 모두 “今吾此行(그런데 지금 나는 이번 여행에서)”이라고 하여 미완성인채 문장이 끊어졌다. 그런데 그 다음에 아무런 표시를 안 한 경우,<sup>14)</sup> ‘결(缺)’이라고 표시한 경우,<sup>15)</sup> 또는 ‘미졸편(未卒編)’이라고 표시한 경우<sup>16)</sup>로 이본 간에 차이가 있다. 특히하게도 (다)에 속하는 조선광문회본과 연세대 『연휘(燕彙)』본에만 ‘미졸편’ 다음에 ‘以下三泉補이

수의 이본들.

- 12) (라) 『연암집』 별집 계열에 속하는 모든 이본들. 『연암집』을 편찬할 때 제목이 없는 여타 編들의 서문과 형식을 통일하기 위해 일률적으로 제목을 붙이지 않은 듯하다.
- 13) ㉠과 ㉡의 차이나는 부분을 밑줄로 표시했다.
- 14) (나) 다백운루본, 일제본, 주설루본, (다) 대만본 등. 단 일제본에는 ‘落’자가 붉은 글씨로 추기되어 있다.
- 15) (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본, (라) 국회도서관본, 大阪中之島圖書館本, 신화자본(박영철본) 등.
- 16) (나) 서울대 고도서본, 서울대 규장각본, 성균관대 존경각본, 충남대본, (다) 성호기념관본, 연세대 『연휘』본, 전남대본, 조선광문회본,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본, 東京都立日比谷圖書館本, (라) 국립중앙도서관 계서본, 승계문고본, 일본 동양문고본 등 대다수의 이본들.

하 삼천이 보충함)라고 하여 모두 142자의 한자가 추가되어 있다.<sup>17)</sup> ‘삼천’이 누구의 호인지 알 수 없으나, 이는 연암이 아닌 누군가가 후대에 자의로 보충한 부분이라 짐작된다.

끝으로, 자구(字句) 차원에서 이본 간의 차이가 더러 발견된다. 예컨대 석가의 ‘설산고행(雪山苦行)’이 (다)에 속하는 전남대본·성호기념관본(星湖紀念館本)·대만본(臺灣本)·동경도립도서관본(東京都立圖書館本)에는 ‘雪山高行’으로 표기되어 있다. 또한 공자가 ‘종적을 감추었다’는 뜻의 ‘삭적(削迹)’이 성호기념관본·대만본·동경도립도서관본에는 ‘削籍’(과면되었다는 뜻)으로 표기되어 있다. 이러한 자구상의 차이도 작품 해석에 미묘한 차이를 낳을 수 있으므로, 어느 쪽이 더 문맥에 적합한지 판단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이본 간의 차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문의 마지막 대목이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 점이다. ㉠ 유형을 취한 (나)와 (다)의 이본들에 수록된 『일신수필』 서문이 원본에 가깝고, ㉡ 유형을 취한 (라)의 이본들에 수록된 서문은 이를 개작한 수정본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전자를 기본 텍스트로 삼아 면밀하게 분석한 다음, 후자에 나타난 개작 양상에 대해서도 고찰해보고자 한다.

### 3. ‘천하장관(天下壯觀)’의 인식과 서학(西學)

『열하일기』 『일신수필』의 서문은 비록 짧은 글이기는 하지만 내용이 난해하므로, 네 개의 단락으로 세분하여 고찰하기로 한다. 그 중 첫째 단락은 처음부터 “吾誰與語天地之大觀哉?(나는 누구와 함께 천하의 장관을 이야기할 것인가)”까지로, ‘천하의 장관’을 이야기할 상대가 없음을 개탄한 대목이다. 둘째 단락은 그 다음부터 “豈不哀哉?(어찌 딱하지 않겠는가)”까지로, 『춘추(春秋)』를 들어 세월의 무상함을 말한 대목이다. 셋째 단락은 그 다음

17) 조선광문회본은 俞鎭哲 소장 필사본을 저본으로 하여 1911년에 간행된 활자본이다. 유진철은 연암과 교본이 있던 蒼厓 俞漢雋의 玄孫으로 1908년 용천부윤을 지낸 인물로 추정된다. 연세대 『연휘』본은 전남 곡성 거주 丁日宇 소장 필사본으로, 조선광문회본과 전남대본의 특징을 공유하고 있는 이본이다.

부터 “況聖人之觀天下哉!(더구나 성인께서 천하를 바라보심에라)”까지로, 묘향산(妙香山) 여행 경험을 이야기한 대목이다. 이상 3개의 단락은 모두 감탄이나 반문의 어기(語氣)를 표현하는 허사(虛辭)인 ‘재(哉)’ 자로 끝나고 있다. 동일한 허사로 끝나는 문장으로 각 단락을 맺음으로써 단락의 구분과 전환을 분명하게 하려고 한 연암의 의중을 엿볼 수 있다. 마지막 넷째 단락은 그 다음부터 미완으로 끝난 대목까지인데, 미완성인 상태로만 보아도 가장 긴 단락이자 가장 심각한 논의를 개진하고 있는 부분이다.

『열하일기』 중 서문을 갖춘 편(編)들을 보면, 그 서문들은 대개 저술 동기를 밝히고 편명(編名)을 해설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일신수필』의 서문은 이와 달리 첫째 단락부터 시종 독자적인 논의를 펴고 있다. 즉 저술 동기나 ‘일신수필’이라고 명명한 이유를 밝히는 대신에, 공자와 석가와 ‘泰西人(서양인)’을 함께 거론하고 유가와 불교와 서학을 아우르면서 철학적인 논의를 펴고 있는 것이다.

단지 입과 귀만을 의지하는 자들과는 학문을 이야기할 것이 못 된다. 더구나 평소 그들의 정량(情量)이 미치지 못한 대상에 관해서는 말해 무엇하랴! ① “성인(聖人: 공자-인용자)이 태산(太山)<sup>18)</sup>에 올랐더니 천하가 작아 보였다”고 말하면 그들은 속으로는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면서도 입으로는 그렇겠다고 말한다. ② 하지만 “부처가十方세계(十方世界)를 두루 본다”고 말하면 허망하다고 배척하고, ③ “서양인들은 거대한 선박을 타고 둥근 지구의 저편에서 빙 돌아서 나왔다”고 말하면 터무니없다고 질책한다. 그러니 나는 누구와 함께 천하의 장관(壯觀)을 이야기할 것인가!<sup>19)</sup>

18) 조선광문회본, 국회도서관본, 신활자본(박영철본) 등 몇몇 이본들에는 ‘太山’이 ‘泰山’으로 표기되어 있다. 뜻은 같으나, 『맹자』의 해당 원문에는 ‘太山’으로 되어 있다.

19) “徒憑口耳者, 不足與語學問也. 況平生情量之所未到乎! 言聖人登太山而小天下, 則心不然而口應之; 言佛視十方世界, 則斥爲幻妄; 言泰西人乘巨舶, 遠出地球之外, 叱爲怪誕. 吾誰與語天地之大觀哉?” 인용문의 숫자와 밑줄은 필자가 추가했다. 기존 국역서들에는 밑줄친 부분이 대개 부정확하게 번역되어 있다. 예컨대 리상호 역, 『열하일기』는 “서양 사람들이 큰 배를 타고 지구 밖으로 튀어 나갔다”고 했다.(보리, 2004, 상권, 221면) 반면 今村與志雄 역, 『열하일기』는 “서양인이 큰 배를 타고 지구의 바깥을 빙 돌아왔다”고 번역하고, “이른바 대항해시대의 콜롬버스, 마젤란 등의 사적을 가리킨다”고 풀이했다.(東京: 平凡社, 1978, 1권, 165면, 171면 주 1) 그런데 『職方外紀』 권2, 『以西把尼亞(에스파냐), 조에 마젤란의 세계일주와 관련

이와 같이 『일신수필』 서문의 첫째 단락에서 연암은 ‘입과 귀만을 의지하는 자’들은 학문적 논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고 단언했다. 이는 『순자(荀子)』 『권학(勸學)』에서 “소인의 학문은 귀로 들어가서 입으로 나온다(小人之學也, 入乎耳, 出乎口)”고 한 말에 출처를 둔 것이다. 이로부터 ‘구이지학(口耳之學)’이라는 성어가 생겼다. 길거리의 뜯소문을 듣고 전하는 수준의 천박한 학문이라는 뜻이다. 연암에 의하면, 이처럼 ‘입과 귀만을 의지하는 자’들은 그들의 ‘정량(情量)’이 미치는 한계 안에 사고가 갇혀 있기 때문에 이를 넘어선 고차원의 세계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서 연암이 말한 ‘정량’은 ‘미망(迷妄)에서 벗어나지 못한 중생들의 주관적인 인식’이라는 뜻의 불교 용어이다.<sup>20)</sup> 『열하일기』 『상장잡기』 중의 『상기(象記)』에서도 연암은 이 용어를 써서 유사한 주장을 폈다. 즉 코끼리가 음식을 씹는 데 아무 쓸모없는 기다란 여금니를 지닌 이유를 사람들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것은, “정량이 미치는 대상이 오직 말이나 소나 닭이나 개와 같은 가축들이요, 용이나 봉황이나 거북이나 기린 같은 영물(靈物)에는 미치지 못한 때문이다”라고 했다. 그리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코끼리에게도 이처럼 불가사의한 점이 많은데, 천하 만물 중에는 코끼리보다 수만 배나 더 큰 것들이 있다고 했다.<sup>21)</sup> 요컨대 극히 제한된 일상적 경험에 근거한 선입견을 버리고, 보다 개방적인 자세로 천하 만물의 무궁한 변화를 탐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서 연암은 태산에 올랐던 공자의 경험을 거론했다. 이는 『맹자』 『진심(盡心)』(상)에 언급되어 있다. 여기에서 맹자는, “공자가 동산(東山)에 올

하여, “此國人自古虔奉天主聖教. 最忍耐, 又剛果, 且善遠遊海上, 曾有遶大地一周者.”라고 했다.(艾儒略 原著, 謝方 校釋, 『職方外紀校釋』, 北京: 中華書局, 1996, 76면) 『일신수필』 서문 중의 “遶出地球之外”란 곧 『직방외기』 중의 “遶大地一周”와 같은 뜻이다. 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 『地球辨證說』에도 『직방외기』를 인용하여 마젤란이 “遍遶大地一周”했다고 소개했다.

- 20) 에컨대 『新華嚴經論』 권6에 “如此華嚴經大義, 本無凡聖, 情與非情, 全眞法體, 爲一佛智境界, 更無餘事. 莫將凡夫情量, 妄作樹量.”이라 했다. 불교사전에서는 ‘정량’을 “마음으로써 헤아리는 것. 분별에 의한 추측. 凡人的 妄念分別. 상식적인 생각”이라고 풀이하고 있다.(中村元 編著, 『圖說佛敎語大辭典』, 東京: 東京書籍, 1988, 상권, 739면) 또 명나라 문인 袁宏道の 『廣莊』 『逍遙游』에도 용례가 보인다.(『漢語大詞典』, 上海: 漢語大詞典出版社, 1993, 제7권, 583면).
- 21) 신활자본 『연암집』 권14, 『열하일기』, 『상기』, 장37뒤, “是情量所及, 惟在乎馬牛雞犬, 而不及於龍鳳龜麟也.”

랐더니 노(魯)나라가 작아 보였고, 태산에 올랐더니 천하가 작아 보였다(孔子登東山而小魯, 登太山而小天下)”고 하면서, 그와 마찬가지로 ‘성인(聖人)’ 즉 공자의 문하에서 배운 사람들에게는 다른 학파들의 주장이 매우 하찮아 보인다고 했다. 유가의 학설이 최고의 진리임을 주장하기 위해, 광대한 세계를 보고 안목이 달라졌던 공자의 경험을 예로 든 것이다.<sup>22)</sup> 하지만 머나먼 중국의 태산은 그들의 ‘정량’이 미치지 못하는 대상이기에, ‘입과 귀만을 의지하는’ 조선의 고루한 선비들은 공자의 경험조차 불신한다. 다만 맹자가 한 말이라 수긍하는 체 할 따름이다.

또한 연암은 『맹자』에 이어 불경을 인용했다. 대승불교에 의하면,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사바세계(娑婆世界) 외에도 사방과 사유(四維: 사방의 중간) 및 상하를 합친 10개 방향, 즉 모든 방위에 걸쳐 ‘무량무변(無量無邊)’한 무한 공간인 시방세계(十方世界)가 있으며 그곳에는 무수한 부처가 출현한다고 한다. 예컨대 『대승밀엄경(大乘密嚴經)』 권상(卷上)에서 석가는 “불안(佛眼)으로 시방세계의 모든 보살중(菩薩衆)을 두루 보시며 일체의 불법을 일러주셨다(以佛眼遍視十方諸菩薩衆, 告一切佛法)”고 하였다.<sup>23)</sup> 그러므로 『일신수필』 서문에서 ‘부처가 시방세계를 두루 본다’고 한 것은, 『열하일기』 『도강록』 6월 27일자 기사에서 언급한 바 석가여래가 시방세계를 ‘평등안(平等眼)’으로 본다는 것<sup>24)</sup>과 상통하는 말이다. 하지만 사바세계 너머에 있는 광대무변한 시방세계란 그들의 ‘정량’이 미치지 못하는 대상이기에, 고루한 선비들은 이를 허망한 소리로 배척해 버린다는 것이다.

이와 아울러 연암은 서양인들이 지구 저편에서 거대한 선박을 타고 온 사실을 거론했다. 이는 당시 조선에서는 서학서를 접해야만 알 수 있던 특별한 정보였다. 마테오 리치가 지구의 극서(極西) 쪽에서 8~9만 리를 항해하여 마침내 중국에 온 사실은 연암이 접한 『교우론』이나 『천주실의』 등에도 밝혀져 있다.<sup>25)</sup> 이는 마테오 리치가 1578년 3월 포르투갈의 리스본에서

22) 『맹자』 진심(상)의 해당 구절에 대해, 『孟子注疏』에서 趙岐는 “큰 것을 보는 사람은 뜻이 크고, 작은 것을 보는 사람은 뜻이 작다(所覽大者意大, 觀小者志小也)”는 의미로 풀이했다.

23) ‘佛眼’은 이른바 ‘五眼’의 하나로, 차별을 초월하는 慈悲의 눈을 말한다. ‘菩薩衆’은 출가 보살과 재가 보살이 함께 하는 대승불교의 僧團을 가리킨다.

24) 신활자본, 『연암집』 권11, 『열하일기』, 『도강록』, 장10앞: 김명호, 앞의 책, 136면.

25) 吳相湘 主編, 『天學初函(一)』, 臺北: 臺灣學生書局, 1965, 『交友論』, 299면, “竇也, 自最西航

출발해서 아프리카의 희망봉을 돌아 그 해 9월 인도의 고아에 도착한 제1차 여행과, 1582년 4월 고아에서 출발해서 말라카를 거쳐 그 해 8월 마카오에 도착한 제2차 여행을 합쳐서 말한 것이다. 제1차 여행 때 마테오 리치는 수십 문의 대포를 갖춘 포르투갈의 무장 상선을 탔는데 그 배는 두 개의 큰 돛과 높은 선미(船尾) 및 선수(船首)를 갖춘 900톤의 대범선(大帆船)이었다고 한다. 제2차 여행 때에는 마카오로 가는 포르투갈의 정기 범선을 탔는데 이는 수백 명을 실을 수 있는 서양의 중형(中型) 선박에 속했다고 한다.<sup>26)</sup>

뿐만 아니라, 마테오 리치에 뒤이어 중국에 온 천주교 신부 줄리오 알레니(Giulio Aleni, 艾儒略)가 세계의 인문지리에 관해 저술한 서학서인 『직방외기(職方外紀)』에는 ‘각룡(閣龍: 콜럼버스)’의 아메리카 탐험과 ‘묵와란(墨瓦蘭: 마젤란)’의 세계일주 항해 사실이 소개되어 있다. 또 『직방외기』에는 서양의 거대한 선박에 관한 자세한 정보와 함께 서양에서 중국에 이르는 해로가 소개되어 있는데, 도중에 적도(赤道)를 두 번이나 통과하며 천문을 관측하고 나침반과 해도(海圖)를 이용해 방향을 찾았다고 했다.<sup>27)</sup>

조선에서도 마테오 리치의 항행(航行)은 일찍이 『지봉유설(芝峯類說)』이나 『어우야담(於于野談)』 등에 소개되었다. 홍대용도 『연기(燕記)』에서 그 사실을 언급하며 “마테오 리치가 죽은 뒤에도, 항해하여 동으로 온 자들이 항상 끊이지 않았다”고 했다. 한편 이덕무는 벗 윤가기(尹可基)에게 보낸 편지에서, “속된 선비 중에 유람할 뜻을 품은 자들은 매번 대서양(大西洋)의 마테오 리치가 국내외를 널리 유람하던 일을 말하면서, ‘대장부라면 이처럼 해야 한다!’ 하고 손목을 불끈 쥐며 그 일을 장하게 여긴다”고 풍자했다.<sup>28)</sup>

海, 入中華.”; 같은 책, 『刻文友論序』, 291면, “西泰子, 間關八萬里, 東遊於中國, 爲交友也.”; 같은 책, 『天主實義序』, 363~364면, “利子周遊八萬里, 高測九天, 深測九淵, 皆不爽毫末.” 그밖에 徐光啓의 『跋二十五言』이나 李之藻의 『刻畸人十篇』 등에도 동일한 사실이 기술되어 있다. (같은 책, 『二十五言』, 328면; 같은 책, 『畸人十篇』, 101면)

26) 빈센트 크로닌, 『서방에서 온 현자-마테오 리치의 생애와 중국 전교』, 이기반 역, 분도출판사, 1994, 35~36면, 45면; 조너선 D. 스펠스, 『마테오 리치, 기억의 궁전』, 주원준 역, 이산, 1999, 96~97면; 艾儒略 原著, 謝方 校釋, 앞의 책, 156면 참조.

27) 艾儒略 原著, 謝方 校釋, 위의 책, 권2, 『以西把尼亞』, 76면; 권4, 『亞墨利加總說』, 119~121면, 『亞墨利加諸島』, 139면, 『墨瓦臘尼加總說』, 141~142면; 권5, 『海舶』, 『海道』.

28) 홍대용, 『湛軒書』 외집 권7, 『燕記』 『劉鮑問答』, “利瑪竇死後, 航海而東者常不絕.”; 이덕무,

줄리오 알레니의 『직방외기』는 1631년 정두원(鄭斗源)이 명나라에 사신으로 다녀올 때 처음 국내에 유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익(李瀾)은 『직방외기』에 대한 발문에서, 바다가 지구를 사방으로 둘러싸 막힘이 없으므로 “서양의 선비들은 서쪽 끝까지 향해하여 마침내 동양으로 다시 나왔다”고 하면서, 『직방외기』에 의거하여 콜럼버스와 마젤란의 세계일주 항행을 소개했다.<sup>29)</sup> 연암이 『우상전(虞裳傳)』에서 소개한 이언진(李彦瑱)의 시 『해람편(海覽篇)』에도 ‘사급思及(알레니의 字)의 도설(圖說)’, 즉 세계지도를 갖춘 『직방외기』가 언급되어 있다. 또한 연암은 『열하일기』에서 새로운 지원설(地圓說)을 주장하면서도 종래의 천원지방설(天圓地方說)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았다. ‘지방설(地方說)’이 지구의 형체를 말한 것이 아니라 그 도덕적 의미가 방정(方正)함을 말한 것으로 본다면 ‘지원설’과 양립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는 바로 『직방외기』에서 알레니가 한 주장을 수용한 것이다.<sup>30)</sup>

이와 같이 마테오 리치의 항행이나 마젤란 등의 세계일주는 서학서를 접한 일부 문인 학자 사이에 알려져 있었지만, 그들의 ‘정량’의 한계에 갇혀 있는 조선의 고루한 선비들은 이를 황당무계한 소리라고 꾸짖기 일쑤이다. 그러므로 연암은 ‘천하의 장관’을 더불어 논할 만한 사람이 없다고 개탄했다.

여기에서 각별히 주목할 것은 ‘천하의 장관’을 경험한 사례로서 공자 및

『靑莊館全書』 권16, 『雅亭遺稿』 8, 書 2, 『尹曾若(可基)』, “世儒之志夫遊歷者, 每談大西洋利瑪竇博遊乎方之内外, 未嘗不扼腕壯之曰: ‘大男兒當如此!’”

29) 李瀾, 『星湖先生全集』 권55, 『跋職方外紀』, “故西洋之士, 航海竊西, 畢竟復出東洋.” 여기서 말한 ‘동양’은 필리핀 군도와 보르네오섬 해역을 가리킨다(『四庫全書』, 史部 11, 地理類 10, 張燮, 『東洋考』 권5, 『東洋列國考』 참조). 호남의 실학자 魏伯珪(1727~1798)도 『직방외기』에 의거하여 『西洋諸國圖』를 제작하고 서양 각국의 사정을 자세히 기술한 글을 남겼다.(천기철, 『직방외기』의 저술 의도와 조선 지식인들의 반응, 줄리오 알레니, 『직방외기』, 천기철 역, 일조각, 2005, 361~362면)

30) 신활자본, 『연암집』 12, 『열하일기』, 『태학유관록』, 장86뒤, “謂地方者, 論議認體, 說地毳者, 信形遺義, 意者, 大地其體則圓, 義則方乎?” “大抵其形則圓, 其德則方.”; 같은 책, 권14, 『혹정필담』, 장7뒤, “……可見天圓地方, 乃語其動靜之德, 非以形論也.”; 艾儒略 原著, 謝方 校釋, 앞의 책, 卷首, 『五大洲總圖界限解』, 27면. 마테오 리치도 『乾坤體義』上, 『天地渾儀說』의 초두에서 “有謂地爲方者, 乃語其德靜而不移之性, 非語其形體也.”라고 유사한 주장을 했다.(朱維鈺 主編, 『利瑪竇中文著譯集』, 復旦大學出版社, 2007, 518면)

부처와 아울러 서양인을 거론한 점이다. 『열하일기』 『도강록』 중 압록강을 건너며 ‘도(道)’를 논한 대목에서 유가 경전과 불경과 서학서가 모두 양 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경계(境界)의 철학’을 설파한 것으로 보았듯이,<sup>31)</sup> 여기에서도 연암은 유가와 불교와 서학이 일상적 경험의 한계를 초월한 거대 세계에 대한 개방적 인식을 촉구하고 있는 점에서는 서로 일치한다고 본 것이다. 그리고 『일신수필』 서문에 바로 이어지는 7월 15일자 기사에서 ‘중국 제일 장관론’을 개진하고 있는 점을 보면, 이처럼 서문의 첫째 단락에서 ‘천하의 장관’을 거론한 연암의 의도를 짐작할 수 있다. 즉 ‘천하의 장관’에 속하는 청나라의 발전상을 제대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종래의 편협한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뜻을 암시하고자 한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런데 『일신수필』 서문의 둘째 단락에서 연암은 돌연 화제를 바꾸어 세월의 무상함을 논했다. ‘성인(聖人: 공자)’이 노나라의 역사를 기술한 책의 이름을 ‘춘추(春秋)’라고 지은 까닭은, 장구한 시간의 차원에서 보자면 240년에 걸친 노나라의 역사도 봄이 가을로 변하는 짧은 기간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한 연암 자신이 지금 글을 쓰며 먹물 한 번 찍는 이 짧은 순간에 하나의 ‘작은 지금(小今)’이 ‘작은 옛날(小古)’로 변하니, ‘옛날 시대(一古)’와 ‘지금 시대(一今)’도 하나의 ‘거대한 순식간’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sup>32)</sup> 따라서 연암은 이처럼 순식간이나 다름없는 세월 동안에 명예나 사업을 추구하는 것은 부질없는 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단락에서 연암이 왜 갑자기 이런 기발한 상대주의적 시간론(時間論)을 제기했는지는 넷째 단락에 가서 비로소 알게 된다.

그 다음, 셋째 단락에서 연암은 다시 화제를 바꾸어, 자신의 묘향산 여행 경험을 매우 시적(詩的)인 필치로 서술했다. 이 단락은 연암의 탁월한 문학적 기량이 발휘된 부분이기도 하다. 여기에서 그는 일찍이 묘향산의 한 암자에서 유숙할 때 바로 그 아래 세상에서는 폭우로 홍수가 난 줄도 모른 채

31) 김명호, 『연암의 실학사상에 미친 서학의 영향』, 임형택·김명호·염정섭·리혜당·김용태, 앞의 책, 제4장 ‘경계’의 철학과 『기하원본』, 120~138면.

32) 여기에서 연암이 “一瞬一息之頃, 奄成小古小今, 則一古一今, 亦可謂大瞬息矣.”라고 한 것은, 이덕무가 1760년대 후반에 저술한 『蟬橋堂濃笑』에서 “一古一今, 大瞬息, 一瞬一息, 小古小今. 瞬息之積, 居然爲古今.”이라고 한 것과 흡사하다.(이덕무, 『청장관전서』 권63) 이덕무의 영향을 감지할 수 있는 대목이라 하겠다.

밝은 달빛을 즐기다가 잠들었던 경험을 예로 들면서,<sup>33)</sup> 중국의 태산에 비하면 작은 언덕에 불과한 묘향산조차 이처럼 고하(高下)에 따라 그 경계가 판이한 점을 보더라도 ‘성인(聖人)’이 태산에 올랐을 때 천하가 작아 보였을 것은 틀림없다고 했다. 이는 첫째 단락의 논점으로 돌아가, ‘천하의 장관’을 개방적인 자세로 인식하라는 주장을 추상적 사변(思辨) 대신 자신의 구체적 경험에 근거하여 보강한 것이다.

#### 4. 서학의 유불(儒佛) 비판에 대한 반론

『일신수필』 서문의 마지막 넷째 단락은 다시 화제를 바꾸어 새로운 논의를 전개하고 있는데, 구문이 복잡하고 문맥이 잘 통하지 않았뿐더러 미완성의 글이어서 주지(主旨)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게다가 이 단락은 『열하일기』 이본들 간에 상당한 차이까지 있다. 기존의 『열하일기』 국역서들에서도 특히 번역이 부정확한 부분이므로, 이를 다시 몇 개의 소단락으로 나누고 정확한 번역문을 제시한 뒤에 논하도록 하겠다.

- ① 설산(雪山)에서 고행한 저 사람(석가·인용자)<sup>34)</sup>은 공자의 집안에서 세 번이나 처를 내쫓고, 아들 백어(伯魚)가 공자보다 일찍 죽고, 공자가 노나라와 위(衛)나라에서 종적을 감추었던 일들<sup>35)</sup>을 미리 내다볼 수 있어서

33) 연암은 1771년 과거를 폐한 뒤 국내 명산을 유람하던 중 묘향산에 오른 적이 있다.(김명호, 『연암 연보』, 임형택·김명호·염정섭·리혜당·김용태, 앞의 책, 375면; 신화자본, 『연암집』, 권1, 『髮僧菴記』)

34) 석가가 설산에 들어가 6년 간 고행했다는 것은 대승불교에서 생긴 전설이다. 석가의 일대기를 그린 『八相圖』 중에 『雪山修道相』이 있다. 전남대본·성호기념관본·대만본·동경도립도서관본 등 몇몇 이본들에는 ‘雪山高行’으로 표기되어 있다.

35) 공자(또는 공자의 부친 叔梁紇)와 아들 伯魚와 손자 子思가 모두 처를 내쫓았다는 ‘孔氏三世出妻’설이 『禮記』 『檀弓』(上)이나 『孔子家語』 『後序』 등에 근거해서 널리 퍼졌다. 백어는 원 살에 죽었는데 당시 공자는 나이 예순 아홉이었다고 한다.(『孔子家語』 권9, 『本姓解』) 『장자』의 『天運』, 『山木』, 『讓王』, 『漁父』, 『盜跖』 등에 공자가 “노나라에서 두 번 쫓겨났고 위나라에서 자취를 감추었다(再逐於魯, 削迹於衛)”고 했다. 『史記』 권47, 『孔子世家』에 의하면, 공자는 노나라에서 大司寇에 임명되었으나齊나라의 이간책으로 인해 의심을 받고 위나라로 달아났는데, 위나라에서도 참소를 당해 위협을 느끼고 달아나야 했다고 한다. 따라서

이 때문에 출가한 것이 아니다. 만약 지(地)·수(水)·풍(風)·화(火)가 눈 깜짝할 사이에 모두 공(空)이 된다는 이유로 그랬다면, 이는 한심스럽다고 하겠다.

- ② 저들(서양인들)은 또 말하기를, 성인(聖人: 공자)과 불씨(佛氏: 석가)의 관찰은 아직 지구를 떠나지 못했다고 한다. 그런즉 천구(天球)에 의거해서 천문을 관측하고<sup>36)</sup> 별들을 어루만지며 다니므로, 자기들의 관찰이 이씨(二氏: 공자와 석가)보다 낫다고 자부한다.
- ③ 하지만 저들이 이국(異國)에서 말(중국어)을 배우며 백발이 되도록 글(한문)을 익혀서 불후의 저술을 남기려고 함은<sup>37)</sup> 어째서일까? (저들은) 본래 이 몸이 현제에 존재한다고 여기지만, 그것은 지나간 시간적 경계(境界)<sup>38)</sup>에 속하고 시간적 경계는 부단히 지나가므로, 예전에 입과 귀에 의존하여<sup>39)</sup> 학문이라 여겼던 것들 역시 증거를 취할 데가 없는 까닭이다.
- ④ 그런데 지금 나는 이번 여행에서<sup>40)</sup>

연암은 셋째 단락에서 자신의 묘향산 여행 경험을 이야기한 뒤 다시 화

---

성호기념관본·대만본·동경도립도서관본 등 몇몇 이본들에서 ‘劄迹’을 ‘劄籍’으로 표기한 것은 잘못이다.

- 36) “按球步天”에 대해 기존 국역서들은 “이 지구를 어루만지고 공중으로 달리며”(이가원 역, 대양서적, 1973, 상권, 178면), “땅덩이는 제쳐 두고 허공을 성큼성큼 걸어”(리상호 역, 보리, 2004, 상권, 223면), “지구를 어루만지며 허공으로 걸어다니고”(김철조 역, 돌베개, 2009, 1권, 248면) 등으로 오역했다. ‘步天’은 천문을 관측한다는 뜻이다. 三垣 二十八宿에 속하는 별들을 7인 시가 형식으로 소개한 『步天歌』가 있다.
- 37) ‘不朽’는 『左傳』 襄公 24년조에 나오는 말이다. “최상은 덕을 행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공을 세우는 것이며, 그 다음은 말을 남겨 놓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죽은 지 오래 되어도 없어지지 않으니, 이를 일러 ‘썩지 않는다’고 한다(大上有立德, 其次有立功, 其次有立言, 雖久不廢, 此之謂不朽)”고 했다. 그리하여 ‘立德’, ‘立功’, ‘立言’을 ‘三不朽’라고 하는데, 『일신수필』 서문에서는 특히 ‘立言’(저술)을 가리켜 한 말이다.
- 38) ‘過境’의 ‘境’은 원래 공간적 개념이지만, 여기서는 현제(今)와 과거(古)를 나누는 시간적 경계로 해석했다.
- 39) “昔之所憑” 다음에 ‘口耳’가 생략된 것으로 보았다. 『일신수필』 서문 첫머리에서 “徒憑口耳者, 不足與語學問也”라고 했기 때문이다.
- 40) “彼雪山苦行者, 非能逆觀於孔門之三黜, 伯魚之早沒, 魯衛之劄迹, 而爲此出世也. 誠以地水風火, 轉眼都空, 此可寒心. 彼又謂聖人與佛氏之觀, 猶未離地, 則按球步天, 捫星而行, 自以其觀勝於二氏. 然異方學語, 白頭習文, 以圖不朽者, 何也? 本爲此身現在, 而屬之過境, 境過而不已, 則昔之所憑以爲學問者, 亦無所取徵故耳. 今吾此行,” 인용문 중 숫자는 인용자에 의함.

제를 바꾸어, 여기에서는 ‘서양인’ 즉 중국에 온 서양의 천주교 신부들이 불교와 유가를 비판한 내용에 대해 논란을 벌인다. 위의 인용문 중 ①은 불교를 비판한 내용인데, 비판의 주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연암이 그와 같이 비판한 것처럼 읽힐 수 있다. 하지만 ②에서 첫 문장의 주어인 ‘저들(彼)’이 서양인들을 뜻함은 내용으로 보아 자명하다. ‘저들은 또 말하기를(彼又謂)’이라고 하여, 서양인들은 석가를 비판할 뿐 아니라 ‘또’ 공자와 석가를 싸잡아 비판한다고 했다. 따라서 ①과 ②는 모두 서학서에서 불교와 유가에 대해 비판한 내용을 연암이 자기 나름으로 이해하고 요약해서 소개한 대목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sup>41)</sup>

연암에 의하면, 서양인들은 공자가 겪었던 것과 같은 현세의 고통을 예견하고 석가가 출가했던 것은 아니라고 비판했다.<sup>42)</sup> 또 그들은 지·수·화·풍이 모두 순식간에 공(空)이 된다는 이유로 석가가 출가했다면 몹시 한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지·수·화·풍은 불교에서 말하는 만물의 네 가지 원소로 ‘사대(四大)’라고 한다. 『원각경(圓覺經)』 ‘보안보살(普眼菩薩)’장에서 석가는 ‘사대’로 이루어진 우리 육신은 죽으면 해체되어 각기 지·수·화·풍으로 돌아가므로, 실체가 없어 허공의 꽃과 같다고 했다. 이처럼 사람이 죽으면 심신(心身) 일체가 없어진다는 불교의 교설에 대해, 육신은 썩어 없어지나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천주교의 영혼불멸설에 입각하여 비판을 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sup>43)</sup>

41) ① “彼雪山苦行者”의 ‘彼’와 ② “彼又謂……”의 ‘彼’가 상이한 주체, 즉 각각 석가와 서양인을 가리키는 바람에 해석상 혼란을 자아낸다. 만약 ① “彼雪山苦行者”를 “彼謂雪山苦行者”로 수정하면, ② “彼又謂……”와 호응하면서 ‘彼’가 일관되게 서양인들을 가리키게 되어 문리가 순탄해질 것이다. 아마 연암의 원래 의도 역시 그렇지 않았을까 짐작하지만, 현전하는 어떤 이본에서도 이처럼 ①의 ‘彼’ 다음에 ‘謂’ 자를 추가한 수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42) 이는 ‘十方三世’ 즉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걸친 모든 시간과 공간을 두루 보는 부처의神通력을 부정한 말인 듯하다. 반면 마테오 리치는 천주의 전지전능을 주장하면서, “그의 지력은 우매함도 없고 오류도 없어서, 만세 이전의 과거든 만세 이후의 미래든, 마치 눈을 마주하듯이 어떤 일도 그의 지력을 피할 수 없다(其知也無昧無謬, 而已往之萬世以前, 未來之萬世以後, 無事可逃其知, 如對目也)”고 했다(吳相湘 主編, 앞의 책, 『天主實義』, 首篇, 397~398면). 또 줄리오 알레니는 고대 유대인들이 거주한 팔레스타인 지역을 소개하면서, “이 지역에는 종래 천주의 명을 받아 미래의 일을 미리 알 수 있는 성현들이 많았다(此地從來聖賢多有受命天主, 能前知未來事者)”고 하면서 그러한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예수가 탄생했다고 했다. (艾儒略 原著, 謝方 校釋, 앞의 책, 권1, 『如德亞』, 53면)

43) 『천주실의』의 제3편과 제4편에서 영혼 불멸설을 자세하게 논했다. 『직방외기』에서도 예수

뿐만 아니라 서양인들은 공자와 부처의 관찰이 지구를 벗어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 두 사람은 모두 지상에서 천하나 시방세계를 바라보았을 뿐이라는 것이다. 이에 비해 자신들은 “천구(天球)에 의거해서 천문을 관측하고 별을 어루만지면서 다니므로” 훨씬 더 고차원의 세계인 우주를 인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서 ‘천구에 의거해서 천문을 관측한다’는 것은, 관측자를 중심으로 구형(球形)의 하늘인 천구를 가정하고, 황도와 적도, 지평선과 자오선, 천정(天頂)과 남북 양극(兩極) 등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천체의 천구상 위치와 그 시간적 변화를 측량하는 것을 말한다.<sup>44)</sup>

한편 ‘별을 어루만지며 다닌다’는 것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 구절이다. 원래 ‘별을 어루만진다(捫星)’는 것은 손으로 별을 만질 수 있을 만큼 높은 곳에 올랐다는 뜻으로 쓰는 시적인 표현이다.<sup>45)</sup> 따라서 이는 아마 서양인들이 망원경으로 별을 관측하며 항행한 사실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 한다. 서양의 망원경을 통하면 하늘 높은 곳에 있는 별들이 손에 잡힐 듯이 가까워 보이기 때문이다. 『직방외기』에 의하면, 서양의 거대한 선박에는 천문 관측을 전담하는 ‘역사(歷師)’가 있어서, “낮에는 해를 관측하고, 밤에는 별을 관측한다”고 했다.<sup>46)</sup>

이와 같이 서양인들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천문을 관측하므로 자신들의 관찰이 공자나 석가보다 낫다고 여긴다고 했다. 마테오 리치는 『천주실의』에서 불경의 비과학성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해가 밤에 수미산(須彌山) 뒤에 숨는다”든가, 네 개의 대륙이 바다 위에 떠 있다는 사대부주설(四大部州說)이라든가, “아함(阿函)이 좌우의 손으로 해와 달을 가리면 일식과 월식이

의 교의를 소개하면서, “사람에게는 육체가 있고 영혼이 있다. 육체는 사라질 수 있어도 영혼은 사라질 수 없다(人有形軀, 有靈魂; 形軀可滅, 靈魂不可滅)”고 했다.(艾儒略 原著, 謝方校釋, 위의 책, 권1, 『如德亞』, 54면)

44) 줄리오 알레니의 『직방외기』 卷首, 『五大洲總圖界度解』에서 천구의 남북 양극, 황도와 적도 등을 설명하고 있다.

45) 이를테면 李白의 시에 “夜宿峰頂寺, 舉手捫星辰.”이라고 했다.(『李太白集注』 권30, 『題峰頂寺』)

46) 艾儒略 原著, 謝方 校釋, 앞의 책, 권5, 『海舶』, 157면, “歷師專掌窺測天文, 晝則測日, 夜則測星.”

서양의 망원경, 즉 千里鏡은 1631년 鄭斗源이 서양인 신부에게서 얻어 국내에 처음 가지고 왔는데, “천문을 관측하고 백 리 밖에서 적을 탐지할 수 있다고 한다(能窺測天文, 視敵於百英里外云)”고 했다.(『인조실록』, 9년 7월 12일)

된다”는 설 등을 들고, 이처럼 인도에서는 원래 천문지리학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서양의 선비들은 그것을 비웃으며, 토론할 가치도 없다고 여긴다”고 했다.<sup>47)</sup> 홍대용도 『연기』에서 “지금 서양의 방법은 수학으로써 근본을 삼고 천문 의기(儀器)로써 참작하여 온갖 현상을 관측하므로, 무릇 천하의 원근과 고저와 대소와 경중을 눈앞에 모두 모으기를 손바닥 가리키듯 쉽게 하니, 한(漢)·당(唐) 이래 중국에 없던 것이라 말해도 망언이 아니다”라고 했다.<sup>48)</sup>

『일신수필』 서문 중 마지막 넷째 단락의 ①과 ②에서 연암은 유가와 불교에 대한 서양인들의 비판을 소개하는 데 그치고 있으므로, 그 역시 이러한 비판에 일정하게 공감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③에서도 연암은 서양인들의 비판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론을 제기하는 대신, 그들이 중국에 와서 종신토록 중국어와 한문을 학습하여 불후의 저술을 남기려고 애쓰는 이유에 대해 추측할 따름이다. 그리고 그 이유는 아마도 부단한 시간의 변화로 인해 입과 귀로만 전해서는 조만간 사라질 수밖에 없는 학문적 증거를 남기고자 해서일 것이라고 본다.

하지만 둘째 단락의 논의를 상기하면, 넷째 단락의 ③에는 완곡하나마 서양인 천주교 신부들의 중국 선교 활동에 대한 비판이 함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서 둘째 단락에서 연암은 상대주의적 시간론에 입각하여, 순식간이나 다름없는 세월 동안에 ‘명예나 사업을 추구하는 짓(立名立事)’은 부질없는 딱한 짓이라고 했다. 이제 넷째 단락의 논의와 연결시켜 보면, 이는 뜬금없는 주장이 아니라, 선교 활동의 일환으로 서양인들이 한문으로 서학을 저술하고자 하는 데 대해 세월의 무상함을 거스르는 헛된 노력이라고 비판하기 위한 포석이었음을 깨닫게 된다.<sup>49)</sup>

47) 吳相湘 主編, 앞의 책, 『천주실의』 제7편, 594~595면, “日輪夜藏須彌山之背, “阿函以左右手掩日月, 爲日月之蝕”, “吾西儒笑之, 而不屑辯焉.” ‘阿函’은 ‘阿舍’으로 音譯되는 Āgama를 가리키는 듯하다. 그러나 이는 ‘傳’, ‘教’, ‘法歸’ 등으로 漢譯되는 개념으로, 인명이 될 수는 없다. 藍克實·胡國楨 譯註, 英譯 『天主實義』, 臺北: 利氏學社, 1985, 395면에서는 이를 ‘Arhan’ 즉 阿羅漢으로 고쳐 번역했다.

48) 洪大容, 『湛軒書』 外集, 권7, 『燕記』, 『劉鮑問答』, “今泰西之法, 本之以算數, 參之以儀器, 度萬形, 窺萬象, 凡天下之遠近高深巨細輕重, 舉集目前, 如指諸掌, 則謂漢唐[以來]所未有者非妄也.”

49) 그렇기는 하지만, 묘향산 여행 경험을 이야기한 셋째 단락으로 인해 논의의 흐름이 끊겼다

넷째 단락의 마지막 문장인 “今吾此行”을 소단락 ④로 나눈 것은, 한문에서 ‘今’이라는 시간 부사는 흔히 단락 전환의 의미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이라고 번역하고 일단 별개의 소단락에 소속시켰다. 추측컨대 연암은 여기에서 다시 한번 화제를 바꾸어 『일신수필』 서문을 마무리하는 내용으로 새 단락을 서술하고자 했을 듯하다. 하지만 그 전까지 개진했던 심각한 철학적 논의를 수습하기가 도무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글을 중단하고 만 것이 아니었을까 한다.<sup>50)</sup>

## 5. 서문의 개작과 보충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연암집』 별집 계열에 속하는 이본들을 보면, 『일신수필』 서문의 넷째 단락 중 ③이 아래와 같이 고쳐져 있다.

하지만 저들이 이국에서 말을 배우며 백발이 되도록 글을 익혀서 불후의 저술을 남기려고 함은 어제서일까? 이는 대체로 귀로 듣고 눈으로 본 것은 지나간 시간적 경계에 속하고 시간적 경계는 부단히 지나가므로, 예전에 입과 귀에 의존하여 학문이라 여겼던 것들 역시 증거를 취할 데가 없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므로 애써 저서를 남겨서 사람들이 반드시 믿게 하려고 한다. 우리 유가에서 이단을 배격하는 논의를 보고는 그 나머지를 주위 모아 애써 불교 배척을 흉내내지만, 불씨(佛氏)의 천당지옥설을 좋아하여 그 술지계미를 먹고, (원주: 몇 자가 빠짐) 까닭이다.

그런데 지금 나는 이번 여행에서<sup>51)</sup>

---

가 재개되는 바람에 전후 맥락이 잘 연결되지 않는 느낌을 주는 것은 사실이다. 연결 고리 역할을 하는 표현이 추가되고, 서양인 선교사들의 한문 저술 활동에 대한 비판이 좀 더 분명하게 서술되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50) 今村與志雄은 “잃어버린 부분에는 아마도 『일신수필』이라고 명명한 이유의 설명이 있었음에 틀림없다. 그것이 박지원의 글쓰기 방식이기 때문이다”라고 추측했다.(今村與志雄 譯, 앞의 책, 주 4, 171~172면) 여기에서 그가 ‘잃어버린 부분’이라고 판단한 것은, 대다수의 『열하일기』 이본들에서 “未卒編”이라고 표시했듯이 실은 미완성된 부분이다. 그리고 ‘일신수필’이라고 명명한 이유를 설명하는 정도의 내용이었다면, 연암이 이 부분을 미완성으로 중단했을 리는 없다고 본다.

이와 같이 『연암집』 별집 계열 이본들에는 “본래 제 몸이 현재에 존재한다고 여기지만”이라는 구절이 “대체로 귀로 듣고 눈으로 본 것은”으로 전혀 다르게 고쳐져 있을 뿐더러, “그러므로 애써 저서를 남겨서 …… 그 술지게미를 먹고” 운운하여 한자로 38자가 넘는 새로운 구절이 추가되어 있다. 그 결과, 서양인들이 한문으로 서학서를 저술한 의도를 추측하면서 완곡한 비판을 함축하는 데 그쳤던 애초의 내용이, 유가의 견지에서 서학에 대해 근본적인 비판을 가한 내용으로 변모하게 되었다. 마테오 리치는 『천주실의』에서 불교를 배척하는 한편 천당지옥설을 폄하하는데, 이와 같은 서학의 주장에 대해 유가의 이단(異端) 배격론과 불교의 천당지옥설을 모방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열하일기』, 『곡정필담(鵠汀筆談)』에서 연암은 중국 선비 왕민호(王民俾)와 서양의 천주교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왕민호가 천주교의 성립 경위와 그 주요 교리를 간략히 소개하면서 “불교를 배격하면서도 윤회(輪回)를 독신(篤信)한다”고 천주교를 비판하자, 연암은 예수가 한(漢)나라 애제(哀帝) 때 대진국(大秦國: 로마제국)에서 태어나 ‘서해(西海: 서양) 너머까지 천주교를 포교했다는 마테오 리치의 설<sup>53)</sup>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윤회를 독신하여 천당지옥설을 만들었으면서도, 부처를 헐뜯고 배격하여 원수처럼 공격하는 것은 어째서인가?”라고 물었다. 또 불교의 제법환망설(諸法幻妄說)과 천주교의 인격신론(人格神論)이 『시경(詩經)』의 구절과 어긋나는 점을 지적한 뒤, “이 두 종교 중 어느 것이 나은가?”하고 물었다.<sup>54)</sup> 그러자 왕

51) “然異方學語，白頭習文，以圖不朽者，何也？蓋以耳聞目見而屬之過境，境過而不已，則昔之所憑以爲學問者，亦無所取徵。故強爲著書，欲人之必信。見吾儒闢異之論，則綴拾緒餘，強效斥佛。悅佛氏堂獄之說，則嘔啜糟粕，(缺幾字)故耳。今吾此行(缺)” 개작된 부분을 밑줄로 표시했다.

52) 『천주실의』 제2편에서는 불교의 ‘空’을 공박했고, 제3편에서는 석가가 천주교의 천당지옥설을 차용했다고 주장했으며, 제4편에서는 부처의 ‘一切唯心造’와 ‘唯我獨尊’설을 비판했다. 제5편에서는 불교의 윤회설과 살생 금지 계율을 집중적으로 논박했다. 윤회설은 피타고라스의 학설을 이어받은 것이라고 했다. 제6편에서는 천주교의 천당지옥설이 불교의 윤회와 극락왕생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제7편에서는 불상 예배와 讀經과 염불 등을 비판했다.

53) 그러나 마테오 리치는 『천주실의』 제8편에서 예수는 한나라 애제 때 동정녀에게서 태어나 서토를 널리 교화한 뒤 33년 만에 승천했다고만 했다. (吳相湘 主編(1965), 『天學初函(一)』, 628~629면) 연암이 전한 마테오 리치의 설은 실은 黃景源(호 江漢, 1709~1787)이 한 말이다. 황경원은 『耶穌像災記』(『江漢集』 권10)에서 “瑪竇稱：‘漢哀帝元壽二年，耶穌生於大秦國，行教於西海之外。’”라고 했다.

민호는 불교가 ‘서학’보다 훨씬 오묘하다고 하면서, ‘예수교’란 본래 불교의 아류에 불과한데도 중국에서 승유배불(崇儒排佛)함을 보고는 이를 본받아 불교를 배척하고, 유가 경전에서 ‘상제(上帝)’ 등의 용어를 찾아내 유가에 아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연암은 『열하일기』, 『황도기략(黃圖紀略)』의 ‘풍금(風琴)’ 조에서 다음과 같이 천주교를 비판했다.

‘천주’라는 것은 ‘천지 만물의 대종주(大宗主)’라는 말과 같다. 서양인들은 역산(曆算)을 잘한다. 자기 나라(서양국·인용자)의 체도로써 집(천주당)을 짓고 산다. 그들의 학설은 허위를 끊어버리고 성실을 귀하게 여긴다. 상제를 부지런히 섬김을 으뜸으로 삼고, 충효와 자애를 의무로 삼으며, 개과천선함을 종교의 입문으로 삼고, 생사의 큰 일에 유비무환함을 궁극 목적으로 삼는다. 대체로 만물의 근본까지 밝혀낸 학문이라고 하겠다. 하지만 목표가 지나치게 고원하고 주장이 너무 교묘해서, 결국 하늘과 사람을 속이는 죄를 범하고 도의와 윤리를 해치는 구렁에 스스로 빠지게 됨을 알지 못한다.<sup>54)</sup>

여기에서 연암은 ‘풍금’ 즉 파이프 오르간을 중심으로 북경의 천주당 건물을 소개하면서 천주교에 대해서도 비교적 객관적으로 소개했다.<sup>56)</sup> 하지

54) 신활자본 『연암집』 권14, 『열하일기』, 『곡정필담』, 장9뒤~장10앞, “雖關佛, 篤信輪回.”, “篤信輪回, 爲天堂地獄之說, 而詆排佛氏, 攻擊如仇讐, 何耶?”, “這二教孰優也?” 이상과 같은 연암의 발언은 黃景源의 『耶穌像災記』를 거의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연암의 선배 문인인 황경원은 송시열의 학통을 계승한 성리학자 李緯의 門人으로서 尊明思想에 투철했다. 연암은 젊은 시절에 당시 대제학이던 황경원에게 문장 실력을 인정받았으며, 그의 從弟인 黃昇源과 절친한 사이였다.

55) “天主者, 猶言天地萬物之大宗主也. 西洋人善治曆. 以其國之制, 造屋以居. 其術絕浮僞, 貴誠信. 昭事上帝爲宗地, 忠孝慈愛爲工務, 遷善改過爲入門, 生死大事, 有備無患爲究竟, 蓋謂追遠溯本之學. 然立志過高, 爲說偏巧, 不知返歸於矯天誣人之科, 而自陷于悖義傷倫之白也.”(박지원, 『燕行陰晴』,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연민문고 소장 연암박지원작품필사본총서 4, 문예원, 2012, 464면, 481면. 여타 이본들과 다른 부분을 밑줄로 표시했다.)

56) 그 중 “상제를 부지런히 섬김을 으뜸으로 삼고, 충효와 자애를 의무로 삼으며, 개과천선함을 종교의 입문으로 삼으며, 생사의 큰 일에 유비무환함을 궁극 목적으로 삼는다”고 한 대목은 앞서 언급한 『곡정필담』에서 왕민호가 한 말을 거의 그대로 옮긴 것이다. 『곡정필담』에서 왕민호는 “其所爲教, 以昭事爲宗, 修身爲要, 忠孝慈愛爲工務, 遷善改過爲入門, 生死大事, 有備無患爲究竟.”이라 했다.(신활자본 『연암집』 권14, 『열하일기』, 『곡정필담』, 장9뒤).

만 연암 역시 천주교가 유가 윤리와의 양립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런데 위의 인용문은 『열하일기』의 초기 필사본인 『연행음청(燕行陰晴)』과 충남대본에 따른 것으로, 『열하일기』의 여타 이본들에서는 적잖이 개작되었다. 우선 원래의 소제목인 ‘천주당’이 ‘풍금’ 또는 ‘풍금기(風琴記)’로 바뀌었으며, 본문에서도 ‘서양’과 ‘천주’라는 글자가 삭제되거나 고쳐지기도 했다.<sup>57)</sup> 그리하여 『연암집』 별집 계열 이본들을 예로 들면, “‘천주’라는 것은 ‘천지 만물의 대주주’라는 말과 같다. 서양인들은 역산을 잘 한다”는 애초의 대목이, “‘천주’라는 것은 천황씨(天皇氏)니 반고씨(盤古氏)니 하는 명칭과 같은 말이다. 단 그 사람은 역산을 잘 한다(天主者, 猶言天皇氏盤古氏之稱也. 但其人善治曆)”로 바뀌어 글 뜻이 상당히 왜곡되었다. 또 천주교에 대해 “대체로 만물의 근본까지 밝혀낸 학문이라고 하겠다”고 한 구절도 “만물의 근본까지 밝혀낸 학문이라 자칭한다(自謂窮原溯本之學)”로 바뀌어 비판적인 어조가 가미되었다.<sup>58)</sup>

이와 같은 「황도기략」, 「풍금」 조의 개작은 아마도 신유사옥(辛酉邪獄: 1801) 이후에 『연암집』을 편찬하는 과정에서 천주교와 관련된 내용이 물의를 빚을까 염려하여 취했던 조치의 하나로 짐작된다.<sup>59)</sup> 이로 미루어 볼 때 「일신수필」 서문에서도 넷째 단락의 ③이 서학에 대한 비판적 논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작된 것은 의미심장하다 하겠다. 게다가 개작된 부분에는 다시금 ‘缺幾字(몇 자가 빠짐)’라고 하여, 삭제 조치가 추가되기도 했음을 알 수 있다. 『연암집』에서 ‘결(缺)’로 처리된 부분은 내용상 문제가 있어 삭제된 경우임이 종종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사장애사(士章哀辭)」를 보면 글의 전반부에 “缺百六字(106자가 빠짐)”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신유사옥 때 천주교 배후세력으로 숙청당한 홍낙임(洪樂任)이 등장하는 부분을 삭제한 때문이라 판단된다.<sup>60)</sup> 따라서 「일신수필」 서문 중 개작 부분에도 그와

57) ‘천주당’이 성호기념관본, 전남대본, 대만본, 동경도립도서관본 등에는 ‘風琴記’로, 여타의 대다수 이본들에는 ‘風琴’으로 바뀌었다.

58) (나)에 속하는 서울대 고도서본, 서울대 규장각본, 성균관대 존경각본 등은 “天主者, 猶言天皇氏盤古氏之號也. 西洋人善治曆”으로, (다)에 속하는 성호기념관본, 전남대본, 조선광문회본,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본, 대만본, 동경도립도서관본 등은 “天主者, 猶言盤古氏天皇氏之稱也. 但其人善治曆.”으로 바뀌었다.(바뀐 부분을 밑줄로 표시함)

59) 김명호, 『『열하일기』 이본의 재검토』, 『동양학』 48,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2010, 15면 참조.

유사한 조치가 취해져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추측컨대 ‘서양’이나 ‘천주’와 같이 서학과 관련된 글자가 포함된 구절을 삭제한 결과, “그 술 지게미를 먹고, …… 까닭이다”와 같이 맥락이 닿지 않는 문장의 파탄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이 아닌가 한다.

『일신수필』 서문에서 확인한 이러한 개작과 삭제 조치를 누가 했는지는 추정하기 쉽지 않다. 신유사옥 직후 말년의 연암이 조신하느라 그같은 조치를 취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개작이 『연암집』 별집 계열에 속하는 이본들에서만 확인되는 점으로 보면, 『연암집』 편찬을 주관한 연암의 아들 박종채(朴宗采)나 그 사업을 이어받은 손자 박규수(朴珪壽)와 같은 후인이 했을 가능성도 있다.<sup>61)</sup> 누구의 손에 의해서였든 간에 『일신수필』 서문이 서학 비판을 강화하는 쪽으로 수정됨으로써, 원본에서 견지했던 서학에 대한 사상적 개방성이 크게 퇴색한 것만은 엄연한 사실이다. 끝으로, 『일신수필』의 미완성 서문을 ‘삼천’이 보충한 부분에 대해 언급해 두고자 한다. 이는 특이하게도 『연암집』 외집 계열에 속하는 조선광문회본과 연세대 『연회』본에만 있다. 여기에는 개작되지 않은 원래의 서문이 수록되어 있는데 그 끝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보충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나는 이번 여행에서) 비록 태산에 오르거나, 시방세계를 바라보거나, 거대한 선박을 타고 지구의 저편에서 돌아오거나 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만리(萬里)를 왕복하는 동안, 진기하고 괴상하고 웅대한 구경거리들이 거의 사람의 마음을 취하게 하고 눈을 현혹시켜, 입으로 표현할 겨를이 없었

60) 신호열·김명호 옮김, 『연암집』, 개정판; 돌베개, 2012, 하, 339면 주 5 참조. 또한 이로 미루어 『연암집』에 연암의 한시 『輓趙淑人』이 수록되지 않고 누락된 것도, 연암이 흥낙임의 작고한 부인인 趙淑人을 위해 만시를 지었을 만큼 흥낙임과 친분이 두터웠던 사실을 은폐하고자 한 결과로 추측된다.(김명호, 『박지원의 輓詩에 대하여』, 『동양학』 54, 단국대 동양학연구원, 2013, 3~4면 참조)

61) 단국대 연민문고 소장 『考定忘羊錄』을 보면, 1807년 박종채가 『열하일기』 중의 『忘羊錄』을 대폭 개작했음을 알 수 있다. 또 단국대 연민문고 소장 『熱河避暑錄』을 보면, 1840년 박규수가 『열하일기』 중의 『피서록』에 해당하는 이 책을 교열했음을 알 수 있다. 일본 동양문고 소장 『연암집』은 수많은 附箋을 통해 원문을 수정 보완하고 있는데 이는 박규수와 같은 후인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김명호, 『『열하일기』 이본의 재검토』, 『동양학』 48,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2010, 11면, 13면; 김명호, 『일본 동양문고 소장 『연암집』에 대한 고찰』, 『한국문화』 21,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0 참조)

고 붓으로 이루 다 쓰지 못했다. 저 시골에 사는 유치한 자의 눈<sup>62)</sup>으로 보자면, 진실로 또한 장관이라 이를 만했다. 하지만 마침내 나의 오두막집으로 돌아와서 나의 고담(枯淡)한 삶을 고수하노라니, 길거리 너머조차 천애과경(天涯過境<sup>63)</sup>)처럼 무관심해졌다. 모두가 몽환(夢幻)이다. 또 어찌 대단스레 여길 가 치나 있겠는가.

아아! 우리 부자(夫子-공자)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던가, “문헌을 널리 배우고 예법으로 행동을 단속하라”고 저들(서양인)은 평생 잠꼬대나 하면서 이국에서 방랑하는 자들일 뿐이다. 잠꼬대와 방랑을 그만두어야만, 학문을 말할 수 있고 천하의 장관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sup>64)</sup>

여기에서 ‘삼천’은 청나라의 눈부신 번영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천하의 장관’으로 여기는 것은 촌놈의 유치한 생각이라고 풍자했다. 그리고 귀국한 뒤 선비 본연의 청빈한 생활로 돌아와 차분히 생각해 보니 중국에서 본 모든 것이 몽환에 불과하더라고 했다. 『일신수필』 중의 ‘중국 제일 장관론’에서 연암은 하급(下級) 선비로 자처하면서, 연행을 다녀온 인사들이 중국에서 본 장관을 이야기하면, 상급 선비는 청나라는 짐승 같은 오랑캐인데 무슨 볼 만한 게 있느냐고 통박하고 중급 선비도 북벌(北伐)을 성취한 뒤에나 장관을 논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고 하여, 선입견에 사로잡혀 중국 실정을 알려고조차 하지 않는 조선의 고루한 선비들을 풍자했다. 그런데 『일신수필』 서문에서 ‘삼천’이 보충한 내용은 연암이 ‘중국 제일 장관론’에서 풍자한 바로 그러한 고루한 선비들의 사고에 가깝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62) 원문의 ‘童觀’은 『주역』, 觀卦, 初六의 爻辭에 나오는 말로, 어린애처럼 유치하고 천박한 관찰을 뜻한다.

63) ‘천애과경(天涯過境)’은 머나먼 중국 지역을 여행한 사실을 가리킨다. ‘過境’은 연암의 서문 원문과 달리, 여기서는 ‘통과한 지역’이라는 뜻으로 쓰였다.

64) 조선광문회본 『열하일기』, 45면, “(今吾此行(未卒編, 以下三泉補)), 雖未能登太山, 見十方, 乘巨舶出地球之外, 然往復萬里, 瓌奇詭異雄特之觀, 殆令人心醉目眩, 口不暇喻而筆不勝書. 自夫鄉里童觀者觀之, 洵亦可謂壯觀, 而及其返吾斗室, 守吾枯淡, 街巷之外, 漠若天涯過境, 皆夢幻也, 又何足多乎哉? 噫! 吾夫子不云乎, 博之以文, 約之以禮? 彼乃終身於夢囈羈旅者耳. 惟不爲夢囈與羈旅也, 斯可以語學問, 又可以語天下之大觀.” 원문 중 “博之以文, 約之以禮”는 『논어』 『雍也』, 중 “子曰: 君子博學於文, 約之以禮, 亦可以弗畔矣夫.”라고 한 구절에 출처를 둔 표현이다.

뿐만 아니라 ‘삼천’은 서양인 천주교 신부들에 대해 잠꼬대 같은 소리나 하며 이국에서 방랑하는 자들이라고 비난하고, ‘박문약례(博文約禮)’라는 진부한 공자 말씀을 들어 혼계하는 것으로 글을 맺고 있다. 『일신수필』의 원래 서문에서 ‘천하의 장관’을 경험한 드문 인물로 공자 및 석가와 아울러 서양인들을 들면서, 유가와 불교와 서학이 일상적 경험의 한계를 초월한 거대 세계에 대한 개방적 인식을 촉구하는 점에서는 일치한다고 보았던 연암의 본지와 심히 배치되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동·서양 사상의 소통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점에서 ‘삼천’에 의한 서문 보충은 앞서 살펴본 서문 개작과 마찬가지로 사상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하겠다.

## 6. 결론

『금묘소초』를 포함하여 『열하일기』를 구성하고 있는 25개의 편(編) 중 13개의 편에 서문이 있으며, 그 서문들은 대체로 저술 동기나 편명을 해설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그 중에는 『도강록』, 『황교문답』, 『환회기』 등의 서문처럼 독자적인 논의를 펴는 경우도 간혹 있다. 『도강록』 서문에서 연암은 『열하일기』에서 청나라의 연호를 사용한 데 따른 물의를 우려하여 그에 대해 해명하는 논의를 폈고, 『황교문답』 서문에서는 청나라의 실정을 엿보기 어려운 여섯 가지의 이유와 자신이 열하에서 엿본 다섯 가지의 천하 형세를 논했다. 또 『환회기』 서문에서 연암은 중국에서 민간의 오락으로 요술이 성행하는 현상이 청나라 황제의 교묘한 통치술과 관련이 있다는 기발한 견해를 제시하기도 했다. 본고에서 논한 『열하일기』 『일신수필』의 서문 역시 ‘천하의 장관’에 대한 개방적 인식을 촉구하는 논의를 펴고 있어, 이와 같은 몇몇 서문들과 성격을 같이하는 글이다.

『열하일기』의 초기 필사본인 『행계잡록』이나 일본 동양문고 『연회』본의 『일신수필』에는 아직 서문이 없었다. 아마도 연암은 『일신수필』의 첫머리인 7월 15일자 기사에서 피력한 ‘중국 제일 장관론’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

를 돕기 위해 그 서론격으로 별도의 글을 집필할 필요를 느끼고, 나중에 『일신수필』 서문을 집필한 것이 아닌가 한다. ‘중국 제일 장관론’에서 연암은 한편으로 웅장한 건물이나 번창하는 시장 등 겉으로 드러난 청나라의 번영상에서 중국의 장관을 찾는 연행(燕行) 인사들과, 다른 한편으로 청나라는 짐승 같은 오랑캐라 볼 것이 없으니 북벌을 성취한 뒤에나 중국의 장관을 논하지는 존명배청론자(尊明排淸論者)들을 모두 비판했다. 그는 이러한 양 극단의 견해를 넘어서, 중국의 제일 장관은 ‘기와 조각’이나 ‘똥거름’에서 찾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쓸모없는 물건이라도 알뜰하게 활용하는 철저한 ‘이용후생’의 정신이야말로 청나라의 번영을 가져온 진정한 장관이라는 것이다. 연암은 이와 같은 자신의 기발한 주장이 당시 조선의 고루한 선비들에게 쉽게 받아들여질 수 없으리라 우려하고, 그에 앞서 사고의 근본적 전환을 촉구하는 철학적인 논의를 전개하고자 했던 것이라 짐작된다.

그리하여 『일신수필』에 추가한 그 서문에서 연암은 일상적 경험에 근거한 편협한 사고를 버리고 ‘천하의 장관’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출 것을 역설하였다. 이를 위해 그는 『열하일기』 『도강록』에서 ‘경계의 철학’을 피력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유학에서 출발하여 불교와 서학까지 포용하는 논법을 구사했다. 오직 공자만 ‘성인’으로 지칭한 점으로도 알 수 있듯이, 연암은 어디까지나 유자(儒者)로서 불교뿐 아니라 서학에 대해서도 비판적이었다.<sup>65)</sup> 하지만 그는 유학의 혁신을 위해 과감하게 동·서양 사상의 소통을 시도했다. 유가 경전과 불경과 서학서에서 ‘경계의 철학’을 이끌어냈듯이, ‘천하의 장관’을 인식한 사례로 공자뿐 아니라 부처와, 나아가 서양인까지 거론함으로써 고차원의 개방적 인식을 촉구하고자 했던 것이다.

『일신수필』 서문의 마지막 단락에서 연암은 불교와 유가에 대한 서양인 천주교 신부들의 비판을 자기 나름으로 요약하여 소개한 뒤, 그들이 한문 서학서의 저술에 힘쓰는 데 대해 완곡한 비판을 덧붙였다. 그런데 『열하일기』의 일부 이본들에서는 이 대목을 개작하여, 서학이 유가를 흉내내어 불

65) 『열하일기』 『口外異聞』 중 ‘佛書’에서 연암은 불교가 수입되기 전에 이미 중국에는 그와 유사한 도가 있었다고 하여, 불교를 老莊의 아류로 폄하했다.

교를 배척하면서도 불교의 천당지옥설을 모방하고 있다고 신랄하게 반박했다. 이러한 이본들에서는 서학에 대해 배타적인 유학자들의 전형적인 비판 논리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도 『일신수필』 서문은 여전히 미완성인 채로 남아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 서학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려던 연암의 애초의 의욕이 점차 퇴색되어간 사정을 엿볼 수 있다. 유학을 기반으로 하되 서학을 비판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사상적 혁신을 추구한 연암의 노력이 이처럼 더 이상 뻗어나가지 못하고 만 것은 조선후기 실학의 발전을 위해 안타까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 참고문헌

### 1. 자료

- 朴趾源, 『燕巖集』, 신활자본, 1932; 일본 東洋文庫 소장 필사본.  
박지원, 『燕行陰晴』,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연민문고 소장 연암박지원작품필사본총서 4, 문예원, 2012.  
박지원, 『熱河日記』, 국회도서관 소장; 星湖紀念館 소장; 연세대 소장(표제 『燕彙』); 전남대 소장; 충남대 소장; 中華叢書委員會 影印, 臺北: 1956; 東京 都立圖書館 소장; 朝鮮光文會, 1911.  
김혈조 역, 『열하일기』, 돌베개, 2009.  
리상호 역, 『열하일기』, 보리, 2004.  
신호열·김명호 옮김, 『연암집』, 개정판: 돌베개, 2012.  
이가원 역, 『열하일기』, 대양서적, 1973.  
今村與志雄 譯, 『熱河日記』, 東京: 平凡社, 1978.
- 李德懋, 『靑莊館全書』, 韓國文集叢刊.  
李瀼, 『星湖先生全集』, 韓國文集叢刊.  
洪大容, 『湛軒書』, 韓國文集叢刊.  
黃景源, 『江漢集』, 韓國文集叢刊.  
艾儒略 原著, 謝方 校釋, 『職方外紀校釋』, 北京: 中華書局, 1996.  
藍克實·胡國楨 譯註, 英譯 『天主實義』, 臺北: 利氏學社, 1985.  
吳相湘 主編, 『天學初函(一)』, 臺北: 臺灣學生書局, 1965.  
朱維錚 主編, 『利瑪竇中文著譯集』, 復旦大學出版社, 2007.

### 2. 단행본

- 김명호, 『열하일기 연구』, 창작과비평사, 1990.  
빈센트 크로닌, 『서방에서 온 현자-마테오 리치의 생애와 중국 전교』, 이기반 역, 분도출판사, 1994.  
조너선 D. 스펜스, 『마테오 리치, 기억의 궁전』, 주원준 역, 이산, 1999.

### 3. 연구논저

- 김명호, 『『열하일기』 이본의 재검토』, 『동양학』 48,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2010, 11면, 13면, 15면.
- 김명호, 『일본 동양문고 소장 『연암집』에 대한 고찰』, 『한국문화』 21,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0, 321~347면.
- 김명호, 『연암의 실학사상에 미친 서학의 영향』, 임형택·김명호·염정섭·리쉐탕·김용태, 『연암 박지원 연구』, 실시학사 실학연구총서 4, 사람의무늬, 2012, 79~146면.
- 김명호, 『박지원의 輓詩에 대하여』, 『동양학』 54, 단국대 동양학연구원, 2013, 3~4면.
- 노윤영, 『『열하일기』 중 『일신수필』의 서술 양상과 전략』, 한양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10, 19~28면.
- 박기석, 『『일신수필』에 나타난 연암의 관심사: 복학을 중심으로』, 『인문논총』 24, 서울여대 인문과학연구소, 2012, 9~16면.
- 천기철, 『『직방외기』의 저술 의도와 조선 지식인들의 반응』, 줄리오 알레니, 『직방외기』, 천기철 역, 일조각, 2005, 361~362면.

Prologue to *Ilsin-Supil* of *Yeolba-Ilgi* and Communication between  
Oriental and Western Ideas

Kim, Myoung-ho

This paper offers an in-depth analysis of the prologue to *Ilsin-Supil*(駙汎隨筆), a chapter of *Yeolba-Ilgi*(熱河日記), from the perspective of “communication between Oriental and Western Ideas.” The author believes that the prologue reveals the efforts by Park Ji-won(朴趾源), writer of *Yeolba-Ilgi* and a well-known Silhak(實學) scholar of the late Joseon Dynasty, to independently embrace Western learning, in order to innovate Confucian ideas.

In his prologue to *Ilsin-Supil*, Park argues that Confucianism, Buddhism, and Western learning are in mutual agreement, as they all urge learners to recognize the great world, which surpasses the limitations of ordinary experiences, with an open mind. In the travelogue that immediately follows the prologue, Park maintains that people should free themselves from a narrow viewpoint in order to understand development in Qing(淸) empire accurately. One can assume that Park placed the prologue, which urges a fundamental shift of thinking, in front of the chapter’s travelogue because its arguments would not be readily accepted by old-fashioned classical scholars of Joseon at the time.

Interestingly, varying editions of *Yeolba-Ilgi* feature a partially revised version of the prologue to *Ilsin-Supil*, with a more critical tone towards Western learning. The fact that not only is the prologue to *Ilsin-Supil* incomplete but it was also revised to take a denouncing tone towards Western Learning indicates that Park’s efforts to pursue innovation of ideas through communication and exchange between Oriental and Western ideas gradually weakened. This is very unfortunate for the development of Silhak in the late Joseon dynasty.

Keywords: Park Ji-won, *Yeolha-Ilgi*, the prologue to *Ilsin-Supil*,  
Western Learning, Matteo Ricci

접수일자: 2013. 8. 31  
심사기간: 2013. 8. 31~2013. 11. 20  
게재결정: 2013. 11. 20